

合 研



5

合 研



目次

I	II	III	IV	V	VI
·	·	·	·	·	·
소식과 일정	재학생 동향	행사와 시설	규정과 약속	교류회 발표	짚막한 말글
4	8	20	24	36	48

I

소식과 일정

2021-1학기 (21. 3월 ~ 21. 8월)

『학림』 47 — 3월

특집: 파른과 한국 선사고고학

박희현, 「파른의 한국 선사학 연구에서의 지향점」

조태섭, 「파른 손보기의 고고학 연대기」

공수진, 「파른 손보기와 한국 구석기 연구」

신숙정, 「손보기 교수님과 한국의 신석기 연구」

하문식, 「한국 청동기시대 연구와 파른 손보기」

윤현진, 「연세대학교 박물관과 파른 손보기」

일반논문

한창균·서인선·김경진, 「연천 삼거리에서 발견된 르발루아 몸돌의 연구 예보」

이정철, 「여주 연양리 구석기 유적의 재고찰」

권용철, 「원 제국의 다르칸 제도가 고려에 유입된 양상」

정경민, 「대원군 세력의 복귀운동과 ‘반대원군연합체제’의 한계」

한봉석, 「장면 정권의 “혼란”에 대한 미국의 책임」

이은희, 「해방 이후 구호분유의 쇄도와 육아용 분유로의 전용」

이동욱, 「조선의 歐美全權公使 派遣에 대한 청 정부의 대응(1887~1890)」

제13회 연세사학연구회 학술발표회 — 6월 18일

주제: <1980년대 이후 연세 학생운동의 길 - 민주화, 그 너머>

(제2회 연세대학교학생운동사 학술회의)

주최: 연세대학교 학생운동사편찬위원회, 연세민주동문화

주관: 국학연구원, 연세사학연구회

일시: 2021. 6. 18. (금), 14:00 ~ 18:00

장소: ZOOM 비대면 회의

(* 발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발표 [사회: 김지훈 (연세대)]

14:20 ~ 14:45 발표 1 ... 「학원 자율과 창의를 시대

– 학생자치기구 부활과 1987 민주주의 이행」

발표: 한성훈 (국학연구원)

14:45 ~ 15:10 발표 2 ... 「1980년대 이후 연세대 대학여성운동의 전개와

특징 – 부문운동에서 성적억압과 성차별 반대운동을 중심으로」

발표: 장미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15:10 ~ 15:35 발표 3 ... 「2000년대 학생운동 소멸 위기와 새로운 운동

방향의 모색: 대학생 당사자 운동의 대두와 운동의 다각화」

발표: 정다혜 (연세대)

비공개 토론 [사회: 이세영 (역사문제연구소)]

16:00 ~ 18:30

학과 사무실 조교(장) 체제 변경 — 8월 이후

기존: 조교장 1 + 사무조교 3

→ 변경: 책임조교* 3 + 사무조교 1

(* 조교장 업무를 세 명의 조교가 학사A·학사B·회계 등의 분야로 나누어 담당)

사학과장 교체 — 9월 1일부 예정

조태섭 선생님 → 이재원 선생님 (임기: 2021. 9. 1. ~ 2023. 8. 31.)

소식과 일정

2021-2학기 (21. 9월 ~)

주요 학사 일정

9월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포탈 입력

조교 배정

학부 답사 (단체 미 실시 예정)

10월

학부 중간시험

학위논문 예비심사

11월

대학원 신입학 서류·면접 전형

12월

제14회 연세사학연구회 학술발표회

학부 기말시험

학위논문 본심사

1월

신년하례식 (코로나 상황에 따라)

자격시험 (종합시험, 외국어시험)

학위논문 제출

2월

대학원생 교류회 및 합동연구실 총회

학위논문 공개발표회 (한국사 전공)

학위수여식

대학원 개설과목

한국사

김성보 선생님, 한국현대정치사연구

도현철 선생님, 한국중세사의제문제Ⅱ

이기훈 선생님, 한국근대사론2

조태섭 선생님, 한국의구석기문화연구사

최윤오 선생님, 한국중세사론3

하문식 선생님, 청동기고고학연구

하일식 선생님, 한국고대사연습

동양사

박경석 선생님, 중국정치사연구

방광석 선생님, 일본근대외교사연구

차혜원 선생님, 동아시아국제관계연구

서양사

설혜심 선생님, 역사학연구방법론

이혜민 선생님, 중세유럽의제문제2

전수연 선생님, 구제도와프랑스혁명

학과장

이재원 선생님

2021. 9. 1. ~ 2023. 8. 31.

전공 주임

한국사 · 하일식 선생님

동양사 · 박경석 선생님

서양사 · 이재원 선생님

학과 사무실 조교

책임조교

김예림, 한국근대사 석사과정 (학사A*)

이기선, 한국근대사 석사과정 (회계*)

박한결, 서양사 석사과정 (학사B*)

사무조교

이소연, 한국고대사 석사과정

연구년(안식년)

임성모 선생님 (2021-2, 2022-1학기)

합동연구실 총무

이일규, 한국고대사 박사과정 (큰방)

김해인, 한국근대사 석사과정 (작은방)

※ 책임조교 업무분장 (대학원 관련만 대략)

* 학사A: 입시, 종합시험, 연구계획서, 논문심사, 휴복학 등

* 학사B: 수업·교과, 강사, 졸업요건, 교양조교 장학, 학부수업 시험감독 등

* 회계: 각종 예산·기금, 인건비, 남운·위당·서여장학, 법인카드, 주차권·근조기 등

II

재학생 동향 졸업과 입학

졸업 — 2021년 8월

석사

김현진, 「정선 매둔 동굴유적의 청동기시대 고인돌 연구」

장재영, 「여말선초 왜구의 침입과 海防體系의 확립」

박사

남민구, 『명대 明-스페인 교섭 연구 -명 지방당국과 루손 마닐라政廳 교섭 과정을 중심으로-』

입학 — 2021년 9월

한국사

홍수연, 근대사 통합과정

이소연, 고대사 석사과정

하태욱, 근대사 석사과정

LU YEJIA, 근대사 석사과정

동양사

전혜현, 일본근현대사 석사과정

서양사

없음

재학생 동향

전공별 현황 : 2021년 2월 ~ 2021년 8월

고고학

졸업과 입학

졸업 · 〈석사〉 김현진

전공생 현황 (2021-2 기준)

박사 논문학기 · 서인선 정봉구 최경용 전소영 김소영 권수진 홍성수

수업학기 · 이상규 이창원

석사 논문학기 · 김길수 이건웅

수업학기 · 이태호 최민정 이민규 여수임 송정섭 정시형 이서영

학석 연계과정 · /

학술 활동

서인선, 「연천 삼거리에서 발견된 르발루아 몸돌의 연구 예보」

『학림』 47, 연세사학연구회 (2021. 3.)

그 밖의 소식

박물관, 정선 매둔동굴 6차 발굴 (6. 27. ~ 7. 26.) - 대학원생 참여



한국고대사

졸업과 입학

〈석사〉 이소연 · 입학

김나연 · 학석연계

(2021-2 기준) 전공생 현황

이유진 남혜민 이일규 백길남 · 박사 논문학기

/ · 수업학기

/ · 석사 논문학기

이소연 · 수업학기

김나연 · 학석 연계과정

세미나 운영

전공생 세미나: 논문 구상·아이디어 발제 및 토론 (2019. 3. ~, 격월)

논문 원고 검토 등 (2020. 9. ~, 매달)

고대사-중세사 논문 스터디 (2021. 7. ~ 8.)

학술 활동

남혜민, 「변한 소국 네트워크의 위계 구조와 안야국」

『1~3세기, 아라가야의 형성과 발전』, 선인 (2020. 12.)

백길남, 「5세기 百濟의 王·侯號 除正 요청의 배경과 그 정치적 의도」

〈한국고대사학회 제174회 정기학술발표회〉 (2021. 5. 15.)

재학생 동향

전공별 현황 : 2021년 2월 ~ 2021년 8월 (이어서)

한국중세사 I

졸업과 입학

졸업 · 〈석사〉 장재영

전공생 현황 (2021-2 기준)

박사 논문학기 · 최민규 이상민

수업학기 · /

석사 논문학기 · 양강(YANG KANG)

수업학기 · 허혜주

학석 연계과정 · /

세미나 운영

고대사-중세사 논문 스터디 (2021. 7. ~ 8.)

한국중세사 II

졸업과 입학

없음

(2021-2 기준) 전공생 현황

홍해뜸 조인희 김태홍 정진혁 · 박사 논문학기

이재빈 단백혜(DUAN BAIHUI) · 수업학기

김미승 강진주 장영민 박혜림 히토미아오이(HITOMI AOI) · 석사 논문학기

김영윤 · 수업학기

/ · 학석 연계과정

그 밖의 소식

김미성, 이석원, 윤석호 등 공저: 『조선 후기 서울 상업공간과 참여층』 (서울역사중점연구 제10권)

서울역사편찬원 (2021. 3. 31.)

재학생 동향

전공별 현황 : 2021년 2월 ~ 2021년 8월 (이어서)

한국근대사

졸업과 입학

입학 · 〈석사〉 하태욱 LU YEJIA 〈통합〉 홍수연

전공생 현황 (2021-2 기준)

박사 논문학기 · 정경민 노상균 김호결 이정윤

수업학기 · 김나라 장윤이 석지훈 홍수연

석사 논문학기 · 이정용 이규연

수업학기 · 김예림 이기선 김해인 이영조 박란 하태욱 LU YEJIA

학석 연계과정 · 김홍준

세미나 운영

한국근현대사 세미나 (2021. 1. ~)

일본어 강독 수업 (2021. 2. ~)

학술 활동

석지훈, 「Korea on Record: Korea's First Encounter with Sound Recordings, 1889 - 1906」

〈Association of Recorded Sound Collection (ARSC) Annual Conference〉 (2021. 5. 15., 베스트 프리젠테이션 42개 중 5위 선정)

그 밖의 소식

주영음, 「1945-1946년 중국 우한 지역 한인의 수용과 귀환 -일본군 '위안부'를 중심으로-」

『역사와 실학』 74, 역사실학회 (2021. 4.)

최용준, 「1930년대 초반 조선공산당 함북도부의 당재건운동」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21년 6월(224회) 월례발표회〉 (2021. 6. 19.)

한국현대사

졸업과 입학

없음

(2021-2 기준) 전공생 현황

김은정 김대현 이봉규 김세림 이준희 정다혜 김지훈 박은영 · 박사 논문학기

정윤영 · 수업학기

송용욱 박좌진 천오성 · 석사 논문학기

김보람 성건호 고낙일 김재형 서준호 · 수업학기

/ · 학석 연계과정

세미나 운영

박사학위논문준비 세미나 (박사생, 매달)

한국근현대사 세미나 (2021. 1. ~)

학술 활동

김대현, 「1980~90년대 게이 하위문화와 대안가족의 구성: 제도적 이성애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구술사연구』 12-1, 한국구술사학회 (2021. 3.)

_____, 「1950~60년대 ‘요보호’의 재구성과 ‘윤락여성선도사업’의 전개」
『사회와 역사』 129, 한국사회사학회 (2021. 3.)

_____, 「치안유지를 넘어선 ‘치료’와 ‘복지’의 시대-1970~80년대 보안처분제도의 운영실태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25-1, 역사문제연구소 (2021. 4.)

정다혜, 「병원에서 마을로 - 거제 지역사회건강사업으로 본 1970년대 의료 소외지역의 지역보건 실험」
『사회와 역사』 129, 한국사회사학회 (2021. 3.)

_____, 「2000년대 학생운동 소멸위기와 새로운 운동 방향의 모색: 대학생 당사자 운동의 대두와 운동의 다각화」
〈제2회 연세대학교학생운동사 학술회의 ‘1980년대 이후 연세 학생운동의 길 - 민주화, 그 너머’〉 (2021. 6. 18.)

_____, 「벽지로 간 간호사 - 보건진료원의 탄생과 지역사회보건의 제도화」
〈이화여대 사학과 4단계 BK21 지역사회·세계사 교육연구팀 공동주최 하계워크숍 ‘국가와 건강관리: 보건의료의 지역적 확대’〉 (2021. 7. 15.)

정윤영, 「유통大戰과 팽창하는 자본주의」

〈제6회 민연 젊은 한국학 아카데미 연구발표회〉 (2021. 8. 6.)

재학생 동향

전공별 현황 : 2021년 2월 ~ 2021년 8월 (이어서)

중국근세사

졸업과 입학

졸업 · 〈박사〉 남민구

전공생 현황 (2021-2 기준)

박사 논문학기 · 박찬근

수업학기 · 함승연

석사 논문학기 · 이영기

수업학기 · 김진송

학석 연계과정 · 박소현

중국근현대사

졸업과 입학

없음

(2021-2 기준) 전공생 현황

지관순 김민서 · 박사 논문학기

/ · 수업학기

심민보 · 석사 논문학기

양청청(YANG QINGQING) 방수미 양가립(JIALIN LIANG)

이신동(LI XINTONG) 주사영(ZHOU SHIYING) 조준희 · 수업학기

/ · 학석 연계과정

학술 활동

지관순, 「中華民國 初期 保守派의 再儒化 시도 -1911년 이후 孔敎派 및 清末 遺老의 활동을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154, 동양사학회 (2021. 3.)

재학생 동향

전공별 현황 : 2021년 2월 ~ 2021년 8월 (이어서)

일본근현대사

졸업과 입학

입학 · 〈석사〉 전해현

전공생 현황 (2021-2 기준)

박사 논문학기 · 윤정환

수업학기 · /

석사 논문학기 · 장재경 김보람 손효지 손명락

수업학기 · 전해현

학석 연계과정 · /

학술 활동

김보람, 「아시오 광독사건(足尾鉍毒事件) 속 빈곤문제」

『동방학지』 19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21. 6.)

서양사

졸업과 입학

없음

(2021-2 기준) 전공생 현황

석영달 · 박사 논문학기

/ · 수업학기

전유한 고혜진 박서현 전장원 · 석사 논문학기

구지윤 이창민 박한결 정호원 · 수업학기

/ · 학석 연계과정

III

행사와 시설

주요 행사 소개

신년하례식

1월. 대개 첫째 주. 교내 알렌관에서.
선생님들과 대학원생 및 졸업생 등이 모이는 자리.
다과를 먹으며 새해 인사를 나누고 덕담을 듣는 자리.
한 해 학과와 동문의 동향, 졸업생과 신입생을 소개.

연세사학연구회 학술발표회

6월과 12월.
『학림』을 발간하는 연세사학연구회의 정기 발표회.
사학과 홈페이지 메뉴에서, 학회 · 학술사업 > 연세사학연구회
(https://history.yonsei.ac.kr/histroy/05_hakrim/hakrim_intro.do) 혹은,
JAMS의 연세사학연구회 페이지 (<https://hakrim.jams.or.kr>) 참조.

논문 공개발표회 (한국사전공)

8월과 2월.
학위논문 심사를 청구할 자격을 얻기 위해, 한국사 전공생이 학위논문을 발표하는 자리.
발표 후 선생님들로부터 공개적으로 코멘트를 받고, 동료 대학원생과도 질의응답.
한국사전공의 석·박사과정생이 발표하나, 발표회 참관은 전공과 무관하게 누구나 가능.

사학인의 밤

2학기 중. 대개 10월.

대학원생 행사는 아니나, 사학과 선생님들과 동문 및 학부생들이 모이는 자리.
주로 사회 각계의 동문 졸업생을 초대하여, 해당 진로에 관심있는 학부생을 연결해주는 행사.
이로 인해 '각계'의 하나로서 대학원생이 참여하기도 함.
사학과 학부 학생회가 주관.

사학과 대학원생 학술교류회

아래 합동연구실 총회와 함께 개최.
2~4인의 발표자가 논문 습작 혹은 수업 보고서 발표 및 토론.
자세한 내용은 회보 V장 참고.

합동연구실 총회

8월과 2월.
합동연구실 이용자들의 정기 회의.
「합동연구실 이용 내규」의 관련 내용(본 책자 30쪽)을 참고.

행사와 시설

주요 시설 소개

사학과 사무실

주소 · 홈페이지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외솔관 519호

<https://history.yonsei.ac.kr>

연락처

02-2123-2370

yhisto@yonsei.ac.kr

근무 시간

평일 10:00 ~ 12:00, 13:30 ~ 17:00 (단, 방학에는 15:00까지)

사학과 대학원 세미나실

위치

외솔관 627-1호

대관 방법

사학과 홈페이지(<https://history.yonsei.ac.kr>) 접속

바로가기 버튼 중 외솔관 627-1호 세미나실 대관 클릭

대학원 수업 및 이미 신청되어 있는 행사 날짜·시간이 겹치지 않는지 확인

겹치지 않으면 과 사무실에 방문 혹은 연락하여 신청

(아쉽게도, 전산상으로 자동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학과 합동연구실

위치

큰 방: 외솔관 517호

작은방: 외솔관 518호

이용에 당부드리는 점

합연실 내규와 세칙을 잘 읽어주세요.

합연실에 아무도 없게 되는 경우, 잠시일지라도 반드시 도어락을 걸어주세요.

밤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경우, 불과 냉·난방을 꼭 끄고,

[※중요] 쓰레기통을 복도 끝 합연실 큰방 문 앞으로 꺼내 놓아 주세요.

합연실 프린터로 인쇄하는 경우, 반드시 사용 내역을 기록해 주세요.

합연실 도서는 공용이므로, 잡지 등을 이용하신 후에는 제자리에 두어 주세요.

상임석 신청 방법

매 학기 방학마다, 합연실 총무가 상임석 신청 공지를 띄웁니다.

공지 확인은, 사학과 홈페이지(<https://history.yonsei.ac.kr>) 접속

바로가기 버튼 중 합동연구실 상임석 신청 클릭

〈합동연구실 이용〉 게시판의 신청 공지 확인하여 댓글로 신청
(게시글을 읽기 위해서는, 연세포탈의 ID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VI

규정과 약속

대학원 사학과 내규

1995년 10월 제정

2015년 8월 개정 (10차)

1. 전공분류

전공을 한국사전공, 동양사전공, 서양사전공으로 나눈다.

2. 입시

가. 입학은 전공별로 구별하여 전형한다. 전공분류가 애매한 경우 중점분야에 준하여 입학한다.

나. 석사과정은 출신학과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박사과정의 경우 석사과정과 동일한 전공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제간의 연구나 새로운 학문분야의 모색을 위한 경우 지도교수의 동의에 의해 예외로 할 수 있다.

다. 입학정원은 전공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같은 전공 내에서도 현재 대학원 재학생 및 입시생의 분포를 감안하여 전공영역별로 입학생을 조정할 수 있다.

라. 수시전형

1) 서류심사

제출서류 : ① 학위논문 ② 기타 연구성과물 ③ 어학 및 특수분야 연수증명 혹은 성적표

심사기준 : [석사]

학업계획서(*1) 70점 / 대학성적(*2) 70점 / 연구활동 및 외국어연수실적 (*3) 60점

- 합계 200점

*1 : 주제 선정에 나타난 안목을 연구 상황에 비취 평가

*2 : ① 전공과목의 이수성적 ② 강독 · 특강 · 연습과목 이수성적 우선

*3 : 전공연구에 필요한 도구류의 준비정도

[박사]

학업계획서 및 석사학위논문(*1) 70점 / 대학 및 대학원 성적(*2) 70점

/ 연구성과, 학회활동 및 어학·특수강좌 이수경력 60점 - 합계 200점

*1 : 학업계획서 30점, 석사학위논문 40점

*2 : 대학성적 30점, 대학원성적 40점

2) 구술시험

전공에 대한 지식 20점 / 학문에 대한 열정과 진지성 20점 / 전공에 대한 적성 20점
/ 어학능력(*1) 20점 / 연구분야 및 여건의 특수성(*2) 20점 - 합계 100점

*1 : 전공분야 사료 및 외국어 독해능력

*2 : 본과 교수진용과 연구분야와의 연계성, 연구분야와 여건의 사회적 공헌에 대한 정책적 고려

3. 과정이수

가. 석사과정

- 1) 학위취득에 필요한 30학점 중 18학점을 자신의 전공에서 이수하고, 나머지 학점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타분야 혹은 타 학과의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 2) 학부과정에서 역사전공이 아닌 학생에 대해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학부과목을 보충 수강해야 한다. 이 경우 대학원 연계과목 중 지도교수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석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다.
- 3) 학부에 개설된 대학원 연계과목 중 학부시절 수강하지 아니한 과목에 한하여 6학점까지 석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수강할 수 있다.
- 4) 학부과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대학원 연계과목을 학부에서 이미 이수한 경우, 지도교수의 승인에 의해 6학점까지 석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5) 소정의 학점이수가 완료되었을 경우라 할지라도 기왕의 이수과목과 성적이 연구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도교수가 판단할 경우 연구지도과정을 통하여 보충수강을 지도할 수 있다. 이 역시 이수학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6) 한 학기 이수과목은 보충수강을 포함하여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박사과정

- 1) 학위취득에 필요한 60학점(석사과정 취득학점 포함) 중 최소 36학점을 자신의 전공에서 이수해야 한다. 나머지 학점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타분야 혹은 타학과의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 2) 석사과정에서 30학점을 초과 이수하였거나 재입학 등으로 박사과정의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삭제>(2015년 8월 개정)
- 4) 박사과정생은 학위 논문 제출 이전에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등재후보)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한국사 전공 학생의 경우에는 발표실적이 2편 이상이어야 한다.

규정과 약속

대학원 사학과 내규 (이어서)

1995년 10월 제정

2015년 8월 개정 (10차)

3. 과정이수 (이어서)

다. 석·박사 통합과정

- 1) 학위취득에 필요한 54학점 중 최소 33학점을 자신의 전공에서 이수하고, 나머지 학점은 지도 교수의 지도에 따라 타분야 혹은 타학과의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 2) 과정이수와 관련한 기타 사항은 박사과정(3-나)과 동일하다.

4. 전공영역 및 지도교수

가. 입학시 전공은 졸업시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 변경해야 할 경우 학과 교수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입학한 학생은 1학기 내에 전공영역을 명시한 연구제안서를 작성하여 학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고, 지도교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그 변경도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 전공영역별 구분은 다음과 같다.

- 1) 한국사전공 : ① 한국고대사 ② 한국중세사1(統一新羅·高麗) ③ 한국중세사2(朝鮮)
④ 한국근현대사 ⑤ 한국사회경제사 ⑥ 한국정치사 ⑦ 한국사상사 ⑧ 대외관계사
- 2) 동양사전공 : ① 중국고중세사 ② 중국근세사 ③ 중국근현대사 ④ 일본고중세사
⑤ 일본근현대사 ⑥ 중앙아시아사 ⑦ 인도·동남아시아사 ⑧ 서아시아사
- 3) 서양사전공 : ① 고대희랍 및 로마사 ② 중세유럽사 ③ 근대영국사 ④ 근대프랑스사
⑤ 근대독일사 ⑥ 미국사 ⑦ 동유럽·러시아사 ⑧ 남유럽사 ⑨ 북유럽사

라.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강 및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고, 학점취득 및 연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5. 종합시험

가. 석사학위과정 :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대학원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하고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1종의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나. 박사학위과정 :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대학원과정을 5학기 이상 이수하고 석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을 포함하여 51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2종의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다. 외국어시험의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제1외국어(영어)

한국사 : TOEFL(PBT 500점, IBT 60점, CBT 170점 이상), TOEIC 610점 이상, TEPS 485점 이상

동양사 : TOEFL(PBT 530점, IBT 71점, CBT 197점 이상), TOEIC 640점 이상, TEPS 515점 이상

서양사 : TOEFL(PBT 550점, IBT 79점, CBT 213점 이상), TOEIC 685점 이상, TEPS 560점 이상

2) 제2외국어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학과 자체 출제) 외부에서 시험을 보는 경우, 일본어는 新JLPT N2 이상(JPT는 540점 이상), 중국어는 新HSK 5급 이상을 합격기준으로 한다.

3) 외국인 석·박사과정생은 제 1외국어로서 영어 대신 학과에서 실시하는 한국어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박사과정의 제 2외국어는 출신지역의 모국어를 제외한 외국어(한문포함) 가운데 선택하도록 한다.

라. 종합시험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사전공

석사과정 : ① 주전공 영역, ② 인접시기1, ③ 인접시기2 또는 연관주제

박사과정 : ① 주전공 영역, ② 인접시기1, ③ 인접시기2 또는 연관주제

2) 동양사전공

석사과정 : ① 중국사학사 및 동양학의 역사와 구조 ② 주전공영역 ③ 전공인접영역

박사과정 : ① 중국사연구의 최근동향 ② 주전공영역 일반 ③ 전공인접영역

3) 서양사전공

석사과정 : ① 역사의 이론 ② 서양사 일반 ③ 전공영역 일반

박사과정 : ① 최근의 역사이론과 연구방법 ② 전공영역 ③ 전공인접영역

4) 종합시험의 출제 및 사정은 전공단위의 교수 전체가 협의하여 시행해야 한다.

규정과 약속

대학원 사학과 내규 (이어서)

1995년 10월 제정

2015년 8월 개정 (10차)

6. 논문작성 및 심사

- 가. 종합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곧바로 논문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에게 제출하고 지도를 받아야 한다.
- 나. 논문지도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 지도교수는 주임교수에게 ‘지도불능’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임교수는 다시 지도교수를 배정하여 학점 이수, 종합시험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
- 다.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임교수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학점 이수 및 종합시험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
- 라. 부득이한 사유(장기출장, 퇴직 등)로 지도교수가 변경되어야 할 때, 주임교수는 학생과 상담하여 지도교수를 다시 배정할 수 있다.
- 마. 학위논문의 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 학생은 당해 학기 초(3월, 9월)까지 초고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에 제출하고, 지도교수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대학원에 논문제출계획서를 제출한다.
 - 1) 한국사 전공 학생이 예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예심 이전학기 말(6월, 12월 말)에 공개발표를 해야만 한다.
 - 2) 한국사 전공 학생의 경우 최종학기(석사 8학기, 박사 14학기, 통합 16학기)에는 예심을 청구할 수 없다.
- 바. 논문제출서가 제출되면 주임교수는 전공분야교수와 협의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 사. 논문이 제출되면 예심이전에 전공단위로 공개발표를 실시한다. 공개발표시에는 심사위원이 아니더라도 학과 교수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아. 예심 후 주임교수는 논문과 심사결과를 공개하고, 학과내 교수와 학생은 이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7. 준용원칙

가. 본 내규는 2003년 9월 현재 대학원 학칙 및 제 내규에 근거한다.

나. 대학원 학칙 및 내규가 개정되었을 때에는 본 내규의 정신에 근거하여 준용한다.

다. 미비한 사항은 학과 교수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규정과 약속

합동연구실 이용 내규

2019년 8월 제정

2020년 2월 개정

2021년 8월 개정 (2차)

개괄

합동연구실은 외솔관 517호(이하 ‘큰방’)와 518호(이하 ‘작은방’)를 아울러 말한다.
연구실의 도서와 설비는 학부·대학원 전공생 등 사학과 구성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다.
연구실을 이용할 때에는 함께 있는 다른 이용자를 배려해야 한다.

총무와 총회

큰방과 작은방에 각각 총무를 한 명씩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큰방 총무는 합동연구실의 시설과 재정을 관리하며, 매 학기 시작 전에 총회를 연다.
작은방 총무는 작은방을 관리하며, 큰방 총무를 보조한다.
총무는 연구실 이용과 상임석 배정 등에서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회에는 합동연구실 이용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총회에서는 회계 보고, 상임석 배정, 차기 총무 선출 등의 논의를 진행한다.

상임석과 공용석

합동연구실의 좌석은 상임석과 공용석으로 구분한다.
상임석은 내규에 따라 배정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공용석은 상임석이 아닌 모든 좌석으로, 구성원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특정 공용석을 한 사람이 전용하여 다른 연구실 이용자에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된다.

상임석 신청과 배정, 이용

상임석 신청은 다음을 원칙으로 한다.

- (1) 석사과정 이상의 대학원생이 신청·이용할 수 있다.
- (2) 매 학기 총회에 앞서 신청하고, 총회에서 참석해야 상임석을 배정받을 수 있다.
- (3) 휴학을 할 학기에는 상임석을 신청해 이용할 수 없다.

상임석 배정은 다음을 원칙으로 한다.

- (1) 상임석 배정의 석사수업학기생·석사논문학기생·박사수업학기생·박사논문학기생 비율은, 그 학기 신청자의 비율에 맞춘다.
- (2) 단, 석사 혹은 박사학기생 신청자 합의 한쪽이, 다른 쪽 신청자 합의 절반 이하일 경우, 해당 과정생은 수업학기생과 논문학기생을 나누지 않고 합쳐 상임석 배정의 비율을 산정한다. ※주1
- (3) 상임석은 입학 후 4개 학기마다 3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4회째 신청하여 이용할 수는 있지만 최하 순위로 배정한다.
- (4) 4개 학기 내에 상임석을 많이 사용하지 못한 고학기생일수록 배정에 우선순위가 있다.
- (5) 우선순위는 석사수업학기생·석사논문학기생·박사수업학기생·박사논문학기생 안에서 각기 따로 구분하여 매긴다.
단, 본 항의 (2)에 따라 수업학과 논문학과를 구분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정의 신청자를 합쳐 우선순위를 매긴다.
본 항의 (3)에 따른 최하 순위자도 이와 같이 따로 구분한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 (6) 같은 우선순위 내에서 순위를 다시 구분해야 할 경우, 고학기생을 우선한다.
- (7) 석·박사 통합과정생은 1~4학기는 석사수업학기생, 5~8학기는 석사논문학기생,
9~12는 박사수업학기생, 13학기 이상은 박사논문학기생으로 간주한다.

규정과 약속

합동연구실 이용 내규 (이어서)

2019년 8월 제정

2020년 2월 개정

2021년 8월 개정 (2차)

상임석 신청과 배정, 이용 (이어서)

상임석 신청·배정·이용에 다음과 같은 예외를 둔다.

- (1) 다음 신청자는 배정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0순위')가 있다.

가. 과 사무실 책임조교 / 나. 과 사무실 사무조교

- (2) 다음 이용자는 상임석을 이용하더라도 이용한 횟수로 계산하지 않는다.

가. 과 사무실 책임조교 / 나. 큰방 총무

- (3) 신청자가 총회에 불참하고 대리인에 위임할 경우, 우선순위를 하나 내린다.

- (4) 상임석 이용자가 휴학하면 그가 지정한 사람 혹은 차순위자가 이용한다.

이용하려는 사람이 없으면 공용석으로 둔다. 이때 이용횟수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가. 학기 1/3 초과시: 휴학한 前이용자가 이용한 횟수로 계산하고,

새 이용자의 횟수로 계산하지 않는다.

나. 학기 1/3 이하시: 前이용자의 이용 횟수로 계산하지 않고,

새 이용자의 횟수로 계산한다.

상임석 이용자는 다음의 의무가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 배정에 불이익을 받는다.

- (1) 배정받은 상임석을 적극 이용해야 하며,

장기간 이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면 차순위자에 상임석을 양도해야 한다.

- (2) 일정한 회비를 내야 한다.

- (3) 합동연구실 청소에 일정하게 참여해야 한다.

사물함 신청과 배정, 이용

사물함은 매 학기 상임석 배정이 끝난 이후 신청한다.

상임석을 이용하지 않는 석사과정 이상의 대학원생이 신청해 배정받을 수 있다.

사물함 이용자는 일정한 회비를 내야 한다.

기타

내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세칙에서 정한다.

내규의 개정 등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세칙의 제·개정 등은 총회 또는 합동연구실 이용자의 합의에 따른다.

그 밖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총회 또는 합동연구실 이용자의 합의에 따른다.

※ 주1

가령, 석사수업학기:석사논문학기:박사수업학기:박사논문학기의 신청자가 12:6:5:3이라면,

석사학기 신청자 총합(=18)의 절반(=9)보다 박사학기 신청자 총합(=8)이 낮으므로,

상임석 배정의 비율은 석사수업학기:석사논문학기:박사학기 = 12:6:8로 계산한다.

상임석이 전체 22석이라면, 실제 좌석 수는 10. 15:5. 07:6. 76, 반올림하면 10:5:7.

만약, 석사수업학기:석사논문학기:박사수업학기:박사논문학기의 신청자가 12:6:6:4라면,

석사학기 신청자 총합(=18)의 절반(=9)보다 박사학기 신청자 총합(=10)이 낮지 않으므로,

상임석 배정 비율은 그대로 석사수업:석사논문:박사수업:박사논문 = 12:6:6:4로 계산한다.

상임석이 전체 22석이라면, 실제 좌석 수는 9. 42:4. 71:4. 71:3. 14, 반올림하면 9:5:5:3.

규정과 약속

합동연구실 이용 내규 세칙

2019년 8월 제정

2021년 8월 개정

총무의 혜택

큰방 총무는 상임석을 사용하더라도, 회비 납부와 청소 참여의 의무를 면제한다.

큰방 총무에게는 소정의 수고비를 지급한다. 재원은 회비 등에서 충당한다. ※주4

(2021. 8. 신설)

상임석 좌석 수

큰방, 작은방을 아울러 합동연구실 상임석의 수는 22석으로 한다. ※주2

상임석 수의 변동은 이후 지양한다.

공용석 지정

공용석의 사용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큰방의 개인 자리 3석을 공용석으로 지정한다.

상임석 신청자의 총회 참석

상임석 신청자가 무단으로 총회에 결석·지각할 경우, 신청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위 조항으로 배정되지 못한 잔여 상임석은 다시 별도로 신청을 받아 배정한다.

회비 납부 의무

합동연구실 상임석 이용자의 한 학기 회비는 25,000원이다. ※주3

사물함 이용자의 한 학기 회비는 5,000원이다.

연구실 청소 의무

합동연구실 상임석 이용자는 한 학기에 적어도 청소 3회 및 대청소에 참여해야 한다.

우편 배송지를 연구실 주소로 지정하는 것에 관하여 (2021. 8. 신설)

누구든 개인 우편물(특히, 학술지 등의 정기간행물)의 배송지를 연구실 주소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일회성 배송에 한한다.

- (1) 상임석을 이용하는 학기에 상임석 이용자가 자신의 우편물을 받으려는 경우.
- (2) 사전에 (배송지 주소에 따라 큰방 혹은 작은방) 총무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이외의 경우로 배송된 개인 우편물은 연구실에 보관하지 않으며, 상시 처분한다.

연구실로 배송된 자신의 우편물은 최대한 빠르게 수령해야 한다.

※ 주2 - 2019-2학기 총회 의결에 따라 기존 20석에서 22석으로 늘림.

- 내규 개정에 따라 박사논문학기생이 상임석을 신청하여 배정할 수 있게 명시했기 때문.

※ 주3 - 2019-2학기 총회 의결에 따라 기존 20,000원에서 25,000원으로 인상.

- 연구실 기자재 증가 등으로 유지비가 늘었던 점을 감안.

※ 주4 - 2021-1학기 총회 의결에 따라 큰방 총무의 혜택에 수고비를 추가.

V

교류회 발표

2021-1 대학원생 학술교류회 (제3회)

2021-1 사학과 대학원생 학술교류회 및 합동연구실 총회

일시: 2021. 8. 20. (금), 13:00 ~ 15:20

장소: 비대면 온라인 회의(ZOOM)

· 합동연구실 총회 [사회: 박좌진 (한국현대사, 석사 4)]

13:00 ~ 14:00

· 학술교류회 발표 [사회: (上同)]

14:00 ~ 14:40 발표 1 ... 「고려시대 지배층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말선초 여성 경제 억압」

발표: 허혜주 (한국중세사 I, 석사 3)

토론: 이상민 (한국중세사 I, 박사 9)

14:40 ~ 15:20 발표 2 ... 「대상인을 개조하기:

한국의 축산물 유통주체 개편과 유통기업의 탄생, 1958-1969」

발표: 정윤영 (한국현대사, 박사 1)

토론: 정다혜 (한국현대사, 박사 9)

발표 1 「고려시대 지배층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말선초 여성 경제 억압」

요지문

허혜주 (석사 3)

I. 머리말

II. 여성의 경제 기반과 경제활동

- 1) 고려의 균분 상속과 여성의 재산소유
- 2) 고려 지배층 여성의 가정경영과 경제생활

III. 여말선초 종법의 도입과 여성 경제 억압

- 1) 여말선초 종법의 도입과 승증장자 상속권 강화 시도
- 2) 성리학자의 억말론과 여성의 경제활동 축소

IV. 맺음말

발표요지

묘지명이나 『高麗史』의 기록을 보면 고려시대 여성은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정치활동과 학술활동을 포함한 사회참여가 배제된 여성들은 가사노동이 여성들이 수행하는 노동력의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고려시대에는 가정을 남성의 참여가 배제된 독립적인 여성의 영역으로 보았고, 그에 따라 여성이 가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지금까지 고려시대 여성은 서류부가혼속과 양측적 친속사회를 근거로 하여 조선 후기의 여성들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았다고 한다. 이 글에서는 이런 사회를 배경으로 여성의 지위가 높았음을 여성의 경제적 활동을 살펴보고 여성의 경제활동이 여말선초를 기준으로 변화하게 되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려는 조선과 달리 종법 의식이 약해 고려시대 여성들은 어머니가 호주로 기록되기도 하였고, 호적에 기재될 때도 출생 순서대로 기재되었다. 제사에 대한 의무가 동등하게 이루어졌는데, 고려시대 제사는 주로 사찰에서 齋를 지내는 형태였다. 사찰에 재를 지내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자녀들이 공동으로 忌日賣를 만들거나 돌아가면서 하는 輪行을 하였다. 전근대 제사는 재산상속과도 연관을 가지고 있다. 즉, 여성 역시도 제사를 지낼 수 있다는 것은 여성에게도 남자 형제들과 동등하게 상속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고려시대는 상속의 원칙이 균분 상속이었다. 여성들은 이 재산에 대한 소유와 처분이 자유로웠다고 보인다. 형제들과 재산 소유에 대한 분쟁에도 여성이 참여할 수 있었고 큰 규모의 재산을 사찰에 시납하기도 하였다.

이런 재산권을 바탕으로 상류층 여성들은 소극적으로 재산을 잘 유지하면서 생활할 수도 있었지만, 고리대를 하거나 혹은 상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이자겸의 모가 사망했을 때, 상인들이 기뻐했

다는 기록은 이자겸의 모가 상인들을 대상으로 수탈적 상행위를 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고려 후기에 지배층은 원과의 교역에 적극 가담했다. 대표적으로 충렬왕비 제국대장공주는 원과의 교역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모시, 인삼 등을 교역하였다. 또한 『고려사』에 노극청의 처는 살던 집의 가격을 올려서 팔기도 했다. 여성들이 치부행위와 재산의 처분에 자유롭게 관여하고 있었다는 것은 당시 불교가 재산 축적을 부정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사찰의 식리행위를 통해서도 재산축적을 했었을 것으로 유추하고 있다. 이렇게 여성들은 경제 분야에서 자신의 재산을 활용해 고려 사회 구성원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여말선초에 여성 경제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변화의 토대를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성리학적 질서에 대한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다. 성리학은 부계친족의 결집, 즉 종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성리학적 질서로의 전환은 고려의 양측적 친속제를 단계적 부계사회로 전환하게 하는 것이었다. 비록 조선 전기까지 고려와 비슷한 상황이 유지되었다고는 하나 종법 질서에 입각한 정책 논의가 나오면서 이전과는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여성들은 더 이상 바깥 활동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있지 않게 되었다. 성리학적 종법 질서의 수용을 통해서 여성은 물리적으로 공간과 불교활동에 제한이 생겼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상속권에서 점차 제외되기 시작하였다. 조선 전기 승증장자 논의를 보면 더 이상 자식없이 사망한 여성의 재산이 여성 본족에게 돌아가지 않게 되었다.

여기에 더불어 성리학은 농본주의 경제체제를 지향한다. 이들은 검약을 강조하였고 이는 결국 이전과 같이 부의 축적을 긍정하는 세태가 아님을 의미한다. 勸農桑의 농업정책에서 여성에게 婦德의 일환으로 직조 행위를 적극 권장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前朝인 고려와는 달리 굉장히 체계적이었다. 수령들에게 요구된 구체적인 내용 외에도 親蠶禮를 통해서 왕실에서부터 몸소 실천적으로 보여주었다. 직조를 통한 면포 생산은 전근대의 세금으로 이용된다. 즉 길쌈은 이전에도 중요한 여성의 덕목이었고 고려 묘지명에도 강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고려 여성은 더 나아가 상행위를 할 수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나 조선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그런 모습을 찾기는 힘들어진다.

주요 참고문헌

『高麗史』 『高麗史節要』 『宣和奉使高麗圖經』 『朝鮮王朝實錄』 『經國大典』 『益齋亂藁』

김용선, 2021, 『高麗墓誌銘集成』, 한림대학교

권순형, 2006, 『고려의 혼인제와 여성의 삶』, 혜안

마르티나 도이힐러, 2013, 『한국의 유교화 과정』, 너머북스

문숙자, 2004,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가족』, 경인문화사

박진훈, 2006, 「고려사람들의 사치허영과 검약 인식」, 『한국사학보』 22

- 박평식, 1998, 「고려말기의 상업문제와 구폐논의」, 『역사교육』 68
- 이순구, 1994, 『朝鮮初期 宗法의 수용과 女性地位의 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논문
- 이혜옥, 2004, 「여성의 자아실현과 의식세계」, 『東方學志』 124
- 이혜옥, 2005, 「고려시대 여성의 경제관념과 부의 추구-상류층 가정의 여성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23
- 이혜옥, 2005, 「고려시대의 가와 가의식」, 『동방학지』 129

발표 1 「고려시대 지배층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말선초 여성 경제 억압」 대한 토론문

이 상 민 (박사 9)

본문은 고려시대 지배층 여성의, 다방면에서 이루어진 경제활동이 여말선초에 이르러 (지배층 남성의) 여성 경제 억압의 대상이 되었음을 밝히는 글입니다.

먼저 발표자의 연구주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그 문제의식에도 공감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발표자의 정리와 같이 고려시대의 여성사 연구는 장기간 많은 양이 축적되었습니다. 하지만 발표자의 지적대로 (경제)생활사적인 문제의식에서 이루어졌던 여성사 연구들의 상당수는 ‘고려시대 전체’ 혹은 (양란 이후 조선 후기를 염두에 둔) ‘조선시대 전체’의 넓은 단위 하에서 포괄적·개설적인 설명을 제공하거나, 혹은 개별 사례들의 보고에 그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후기)은 가부장제 사회이고, 고려시대는 그와는 다른 사회였음은 상식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 ‘달랐던 사회’에서 조선 후기로 이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성리학’의 역할로 대표되는 포괄적·추상적 설명이 반복되는 것에 비해, 아직 구체화된 설명이나 유의미하게 합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만큼 여말선초 이루어진 변화(의 시도)에 초점을 맞추는 시도는 유의미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발표자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는 사실을 밝히며, 준비한 원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몇 가지 질문 및 토론거리들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1. 상속제도와 경제활동의 상관관계

우선적인 의문점은 본문에서 밝힌, 고려시기 상속관행과 경제활동의 상관관계에 대한 입증이 불명확하다는 점입니다. 저자는 II-1에서 고려시대 균분상속으로 인한 여성 자신의 자산 취득에 대해 다루고, II-2에서는 가정경영으로서의 내조·상행위·고리대·사찰시납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자의 II장은 고려시대에는 여성이 상속을 통해 개인 자산을 소유할 수 있어 경제적 행위를 영위할 수 있었고, 그 만큼 여러 적극적인 경제활동에도 나설 수 있었다는 흐름으로 이해됩니다.

이를 집약해서 보여주는 부분이 “위의 사례들에서 여성들이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은 고려는 종법 의식이 약했고 귀족적 특권들이 모계를 통한 세습이 가능한 양측적 친속의 사회였기 때문이다.”(2쪽)는 서술입니다. 다시 말해 저자는 균분상속으로 인한 여성의 사유재산 취득을 고려시대 여성의 제반 경제활동을 지탱한 중요한 근간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전제가 저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어느 정도의 적절성을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이는 2가지 방향에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 균분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이 고려시기 여성의 경제활동에 미친 영향은?

물론 자유롭게 처분가능한 사유재산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쪽이 경제활동에 보다 편리했으리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근대 사회에서 그 ‘편의성’의 유무가 여성의 경제생활에 어느정도의 유의미한 차이를 야기할지는 선뜻 떠오르지 않습니다.

저자가 정리한 II-2의 내용은 대개 ‘고려시기엔 여성이 주도하여 자산을 운용했다’는 내용으로 요약됩니다. 이는 저자의 설명을 통해 수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써 ‘그 운용을 가능케 한 것은 (상속으로 얻은) 개인 소유의 자산이 있었기 때문이다’는 설명까지 저절로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자가 정리한 바대로 고려시기에 자산 소유권이 부부간에 구분되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II-2에서 서술된 여성의 자산 경영의 과정에서 자산의 소유권 분리가 어디까지 유의미한 고려사항이 되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상상컨대 여성 입장에서 ‘본인이 몫의 상속자산은 더욱 자유롭게 운용하고, 남편 몫의 자산은 조심스럽게 다룬다/혹은 그 반대로 한다’ 등의 판단이 발생할 가능성은 생각하기 힘들며, 현재의 글에서 이를 추측할 수 있는 자료적 근거가 제시된 것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주로 당사자 死後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속·증여의 절차·명의를 문제에서는 그 자산을 누구에게·누구의 명의로 넘기는가의 사안과 이어지므로 균분상속 관행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

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소비·경영’ 전반의 영역에서, 여성의 상속 여부가 어떤 유의미성을 지닐지, 현재의 글로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논평자의 단견으로는, II에서 제시한, 고려시대에 부부 양자의 생존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이 주도한) 자산운용 사례들은 대개 해당 자산이 부부 중 누구에게 귀속된 소유물인가 여부 보다는 ‘家産’으로서 공동으로 다루어졌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령 아래의 두 사례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a) “〈공은〉 동곽(東郭)의 궁벽하고 먼 땅에 살며 생산을 일삼지 않았다. 여러 아들이 시가와 조정 가까이에 있는 집을 사기를 청하였고 부인 역시 이르기를, “자손들이 평시에 자못 산업(産業)의 터전을 세움에 미치고 자 하는데 홀로 어찌하여 뜻을 두지 않습니까?”라고 하였다.”¹

(b) 산원동정(散員同正) 노극청(盧克淸)이 가난하여 집을 팔려고 하였으나 팔리지 않았다. 〈노극청이〉 일이 있어서 지방으로 간 사이 그의 아내가 현덕수에게 백금(白金) 12근(斤)을 받고 〈집을〉 팔았다. 노극청이 집으로 돌아와 〈이 사실을 알고서〉 현덕수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초에 9근으로 이 집을 사서 여러 해 살면서 늘리지도 않고 꾸미지도 않았으면서 12근을 받았으니 어찌 옳은 일이겠습니까? 청컨대 〈나머지 돈을〉 되돌려 드리겠나이다.”하였다.²

(a) (b) 두 사례는 비슷한 시기인 12세기 후반 집의 매매를 놓고 벌어진, 반대의 양상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a)의 함유일 가족 사례에서 새 집을 사는 문제는 함유일의 동의가 없어서 관철되지 못했고, (b)의 노극청 가족의 사례에서는 부인이 임의로 집을 판매하고, 노극청은 이를 되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a)의 함유일 처는 영(令) 신근의 딸이었던 만큼 상속재산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b)의 노극청 처에서는 이를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위 자료를 통해 공통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집을 사고파는 문제와 같은 일에, 특별히 각자의 개인재산을 따지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b)사례에서는 노극청 아내가 매각했던 집은 당초 노극청이 구매했던 집임이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고려시기 여성이 행한 경제활동의 큰 부분은 공동자산에 대한 운용에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려시기 (여성이 주도한) 治産활동의 많은 부분은 부부간의 재산공유 의식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따라서 최소한 ‘균분상속’의 함의를 개인재산권의 별도 행사권에서 찾아서는 곤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³

1 「咸有一基誌銘」, “家于東郭僻遠之地, 不事生産. 諸子請買第宅稍近市朝, 夫人又謂, “子孫欲及平時頗立産業基址, 獨奈何不爲實意乎?”

2 『고려사』 권99 열전12 제신 玄德秀 “散員同正盧克淸家貧, 將賣家未售. 因事出外, 其妻受德秀白金十二斤賣之. 克淸還, 謂德秀曰, “予初以九斤, 買此家, 居數年, 無所增飾而得十二斤, 豈可乎? 請還之.”

3 그와 별도로 위와 같은 ‘가정 경영’으로서의 治産은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여성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17세기의 사례로는 한효정, 2007, 『17世紀前後 兩班家 婦人の 經濟活動 研究』 성신여대 박사학위논문; 19세기의 사례로는 김현숙, 2017, 「19세기 중반 한 사족 여성의 경제활동과 고용 노동」, 『서울과역사』 97 참조.

참고로 조선전기의 경우, 한효정의 논문에서는 17세기 이상으로 양반층 부녀의 경제적 권리가 보장되었

물론 정말로 여말선초를 거쳐 여성 경제활동에 변화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례로 저자가 말한 것 중 상업과 관련한 부분과 같이 여말선초에 비판의 대상이 되어 변화가 나타나는 영역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사료 E에서 다루어진 가게 경영, 사료 G에서 주로 다루어진 불사 행위 등은, 여성의 상속분이 사라진 조선 말기까지도 주로 여성에 의해 이루어진 활동입니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II-1에서 저자가 언급한 ‘고려시대 여성의 상속이 가지는 의의는 사회에서 여성의 적극적인 활동의 영역을 만들었다’는 서술을 유의미하게 뒷받침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현재 II-2에서 정리된 것 이상의 자료적·논리적 보충이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령 각 주 66에서 다루어진 「王粹女王氏墓誌銘」과 같이 ‘부모가 계실 때에 진귀한 보물과 완물을 □ 허비함이 없이 □하고 지켰다[父母在時, 珍寶翫物, 無虛費]’고 적시되어 있는 경우가, 왕제의 딸과 같이 독신이 아닌 경우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지 여부, 혹은 균분상속제가 공동재산의식에 미친 영향 등이 더욱 설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승증장자 상속의 경제적 문제

주지하시겠지만, 고려-조선으로의 사회변동 문제를 상속으로 접근할 때의 문제점은, 적장자상속이 조선 후기, 그것도 18세기에 들어서야 본격화된다는 점입니다. 여말선초의 변동 문제에 집중하기로 하였던 저자가 ‘승증장자 상속권 강화’에 대한 문제에 집중한 것은 그 나름의 타개책으로 이해됩니다. 승증장자 상속에 대한 논의는 세종대 이루어지고, 그 까닭에 발표자가 전제한바대로 조선 전기를 ‘성리학자들의 분명한 시도가 있었던 시기’로 간주할 수 있는 핵심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1)과 별도로, 본문 내에서는 ‘승증장자 상속’이 실제로 어떤 방식의 경제생활적 변화를 야기하였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승증장자 상속이란, 본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자식없이 죽은 본처의 재산을 친정에 돌려주지 않고, 향후에 제사를 모시기로 한 妾子에게 물려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 승증장자 상속권 강화는 경제생활에만 한정한다면 여성의 사후에 일어나는 상속방향의 변화에 가깝고, 여성의 생전의 삶에는 간접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승증장자 상속권 강화를 통해, 적어도 경제적인 환경의 변화를 곧바로 상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굳이 그 의미를 확장해본다면 승증장자 상속권은 종법의 정착으로 인해 가정 내 여성과 여성측 친족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 나아가 이로써 당초 여성 몫으로 할당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남편의 가문 쪽으로 기울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등을 주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쪽이든 ‘제사권 집중을 기반으로 한, 친족 내 부계집단의 영향력 강화’가 조선 초기에 실제 어떤 사건들을 야기하였을지 실제적인 사례조사가 요구되리라 생각합니다.

다고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고려-조선시기 전반에 걸쳐 가정경제에 여성이 참여하였던 정황이 일반적이었던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사찰 시납을 통한 기부자의 경제적 이익 문제

앞서 설명한 ‘상속과의 연관성’과 별도로, 사찰 시납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도 조금은 정비가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저자는 각주 84)의 문단을 통해 ‘고려시대 여성들의 사찰 시납과 불사 지원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정리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산권 행사’라는 것은 맥락상 施納, 즉 사찰에 자산을 기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여성이 출자하여 이루어진 불사 거행’은 조선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는 점도 논지 구성상 난맥을 야기하지만, 그것이 다른 영역에서 다루어진 治産·致富로서의 경제 활동과 큰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가 됩니다. 물론 저자의 언급대로, 사찰은 큰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던 중요한 사회세력이었으며, 지배층과도 결탁해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원을 매개한 경제활동이란 기본적으로 사찰의 승려들이 사찰 이름으로 된 재산을 확장시키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물론 ‘사찰에 기부하는 행위’는 사회적인 명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원에서 이루어진 고려대·노비경영 등은 기본적으로 사원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행위입니다. 그 기부자가 기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과는 별개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시 말해 저자가 서술한 ‘사찰과 연계된 신앙 행위가 본인의 구복적 성격을 넘어 경제적 행위로서 치부의 수단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은 적어도 현재의 글만으로는 입증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발표 2 「대상인을 개조하기: 한국의 축산물 유통주체 개편과 유통기업의 탄생, 1958-1969」 요지문

정 윤 영 (박사 1)

1. 머리말
2. 정부의 농업개발 추진과 축산물 유통주체의 외면
 - 1) 한국의 재래식 상품 수출과 미국 원조기구의 플랜트 건립
 - 2) 정부의 플랜트 위탁운영 추진과 상업자본 위탁의 한계
3. 정부의 축산물 유통주체 개편과 시장의 확대재생산
 - 1) 정부의 플랜트 민영화와 보급형 축산물의 상품화 시도
 - 2) 상업자본의 반발과 산업자본의 위탁생산농가 조성
4. 맺음말

핵심어

대상인, 도축장, 민영화, 유통기업, 농업개발, 내부화, 위탁생산농가, 축산물

발표요지

1960년대 후반 한국사회는 유통 문제에 직면했다. 도시의 소비재 초과수요 사태로 유통근대화를 통한 소비재 공급 안정이 요구됐다. 이 연구에서는 정부의 축산물 유통주체 개편과 그 함의를 살펴본다. 정부 소유 도축가공플랜트를 위탁운영하며 도매업에 집중한 상업자본은 축산물 유통과정에서 유통이윤을 추구했다. 축산물 초과수요 사태를 계기로, 국내용 ‘보급형 축산물’ 상품화와 동아시아향 ‘축산물 수출’을 지향한 정부는 제조이윤을 추구한 산업자본에 도축가공플랜트 소유권을 이전해 민영화했다. 수출 주도형 국가적 발전전략이 농업부문에도 확장된 가운데 축산물 유통과정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상업자본의 특성은 이 시기 정부와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이는 축산물 소비시장의 팽창이라는 대전제 속에서 유통기업으로 성장한 산업자본의 농업개발과 위탁생산농가 조성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적 확대재생산 과정을 보여준다.

주요 참고문헌

- Alfred D. Chandler, *The Visible Hand*, Cambridge: Belknap Press, 1977
- Bruce C. Greenwald, *Competition Demystified*, New York: Portfolio, 2005
- Erdener Kaynak, *Marketing and Economic Development*, New York: Praeger, 1986
- Michael E. Porter, *Competitive Strategy*, New York: The Free Press, 1980
- Walt W. Rostow, *View from the Seventh Floor*, New York: Harper & Row, 1964
- William Thorndike, *The Outsiders*, Boston: Harvard Business Review Press, 2012
- 공제욱, 「국가동원체제 시기 ‘혼분식 장려운동’과 식생활의 변화」, 『경제와 사회』 77, 비판사회학회, 2008
- 김민석,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농업협동조합 개편과 성격」, 『한국근현대사연구』 77, 한국근현대사학회, 2016
- ,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미국 유통정책 변화와 서울특별시 양곡시장조합의 성격」, 『서울과 역사』 101, 서울역사편찬원, 2019
- 김성보, 「1950년대 이승만정권의 농정과 농업문제의 성격」, 『인문학지』 29, 충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4
- 김영미, 「1960~70년대 일기를 통해서 본 농민생활과 농업협동조합-『평택 대곡일기』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186,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9
- 송인주, 「1960~70년대 국민 식생활에 대한 국가 개입의 양상과 특징: ‘혼분식장려운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이병준, 「제1차 경제개발 시기 비료수급 정책(1962~1966)」, 『사학연구』 122, 한국사학회, 2016
- 이은희, 「박정희 시대 낙농진흥정책과 낙농업의 발달」, 『동방학지』 183,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8
- 이준희, 「1950년대 북한의 사회주의 상업과 ‘옥심상점」, 『민족문화연구』 85,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9
- 정운영, 「개발 주체들의 불화와 농가의 기회: 박정희 정부 시기 기업형 축산정책의 굴절, 1964~1969」, 『역사문제연구』 24(2), 역사문제연구소, 2020
- 정진아, 「이승만정권기 경제개발3개년계획의 내용과 성격」, 『한국학연구』 31,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9
- 조석곤, 「1960년대 농업구조 개혁논의와 그 함의」, 『역사비평』 88, 역사비평사, 2009
- 조석곤, 황수철, 「농업구조조정의 좌절과 소득정책으로의 전환- 1960년대 후반 농지법 제정 논의를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61, 한국사회과학연구소, 2004
- Erdener Kaynak and S. Tamer Cavusgil, "The Evolution of Food Retailing Systems: Contrasting the Experience of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10(3), 1982
- Peter J. Buckley and Mark C. Casson, "The internationalization theory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A review of the progress of a research agenda after 30 year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40(9), 2009

발표 2 「대상인을 개조하기: 한국의 축산물 유통주체 개편과 유통기업의 탄생, 1958-1969」에 대한 토론문

정 다 혜 (박사 9)

본 연구는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축산정책의 변화를 축산물 유통주체의 개편을 통해 논하면서 이를 당시 경제발전전략과 연관시켜 설명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1960-70년대 경제개발 및 경제정책에 대한 관심이 대자본을 중심, 경공업 및 중공업 육성과 발전, 변화에 맞춰져 있다는 연구사적 한계를 고려할 때, 축산물을 중심으로 한 농업개발의 입장에서 1950-70년대 경제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현대사 연구를 풍부하게 해주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국가-자본가-시장의 구도로 단순화하지 않고, 유통이라는 틀을 통해 원조기구와 정부, 농가와 산업자본, 상인과 도시민 등 주체를 다각화해서 각각의 이해관계를 드러내면서 정책의 실현과정을 설명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본 토론문은 이러한 연구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기 위한 질문과 제언을 하는 것으로 같음하고자 한다.

1. 지나친 개념화, 추상화의 문제

본 글은 195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정부의 축산자원을 통한 농업개발 시도가 유통주체를 둘러싼 현실적인 갈등과 타협 속에서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논문의 서술방식과 전개 방식이 지나치게 추상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일반 역사논문이 아니라 경제학을 베이스로 한 경제사 논문으로 준비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연구가 진행된 과정에 비해 서술의 구체성이 떨어진다. 논문의 전개를 위해 구조화하고 일반화하는 것은 필요하나, 그것을 설명할 때는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는 구체적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연도와 변화의 계기 및 시점, 주도 인물 등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글에서 여러 주체들을 설정하고 이들의 의도와 반응 등을 분명 다루고 있지만 필자의 의도대로 독자가 스토리와 구조를 쉽게 그리기 쉽지 않다.

예를 들어 2장에서는 마장동 도축장을 갖추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농림부, USOM/K, 서울시, '상업자본' (서울축산기업조합) 등이 등장한다. 필자에 따르면, 정부는 농업개발을 통해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활발하다가 어느시점부터 발생한) 축산자원 수출 위기를 해결하고자 했고 USOM/K은 이에 공감하고 '플랜트' (마장동 도축장) 신축을 포함한 수의축산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기술고문을 통해 미국식 축산물 가공·유통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한다. 또한 사업의 초점은 도축-가공-유통의 체계를 갖춘 대규모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고자 한 것이었다. 반면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잘 드러나지 않고, 서울시는 상업자본에 휘둘리다가 이익을 옹호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상업자본을 산업자본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입장인 것인지, 산업자본이 부재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상업자본에 맡기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하지만 맺음말에서 필자가 미국 원조기구는 ‘유통주체 교체론’이었고 정부는 ‘유통주체 육성론’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함으로써 ‘교체론’과 ‘육성론’이 분명한 입장차이이거나 구상 자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실제 내용과 다르게 지나치게 계획과 구상이 있는 일종의 ‘착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분명한 입장차이나 구상이 차이가 있다면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서술할 필요가 있다.

2. 필자가 바라보는 축산물 유통재편과정에 대한 평가는 무엇인가?

3장 2절의 경우 ‘산업자본’인 성품산업의 ‘플랜트’ 운영방식에 대한 중소 정육업자와 ‘상업자본’(서울축산(기업조합))의 반발과 성품산업의 대응, 정부의 조치를 다루고 있다. 이 부분은 정부가 의도한 축산물 소비시장 확대와 수출 확대를 통한 농업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그 귀결을 다룬 것이다.

성품산업의 조치로 인해 1) 정육업자가 가축 직매입을 통해 유통이윤을 추구하기 어려워졌고 2) 도축장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부당한 유통이윤을 근절할 수 있었다. 3) 세입을 확충하고 세금포탈 가능성을 차단했다. 축산물 유통 전 과정에 참여했던 상업자본의 유통이윤은 축소됐고 그 역할도 정육업자로 제한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갈등으로 인해 정부는 축산물 유통주체를 산업자본인 성품산업과 상업자본인 상업자본 모두로 설정하게 되면서 모순이 발생했고 이는 보급형 축산물 상품화의 어려움으로 귀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축산물 유통주체의 개편은 한편으로는 표준규격 부분을 상품화해 해외에 수출하고 국내에 고급 축산물 소비시장을 개척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성품산업의 수출 또한 성공적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유통기업 형성과 농업개발로 이어졌다.

그렇다면 필자는 이러한 산업자본과 정육업자, 상업자본(서울축산), 정부의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정부가 의도한 성품산업의 전개방향이 옳은 것이었으나 정부의 무능력으로 인해 상업자본의 힘을 통제하지 못하고 타협했으며, 그로 인해 본래 축산물 상품화에 실패한 것인가? 아니면 자연스러운 시장의 조정과정이었다고 봐야할 것인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이것은 성품산업의 ‘근대화된’ 혹은 ‘새로운’ 전략에 대한 ‘기존’ 도축업계의 반발과 그로 인한 정부(농림부?)의 개입으로 인한 좌절로 보이기도 한다. 오히려 이 위기를 성품산업의 또 다른 전략으로 돌파해 나가는 과정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일본과 같은 선진국형 축산물 가공 및 유통을 학습한 개별 기업의 시장 장악과 성장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며, 애초 1950년대 후반 미국에서 의도한 농업개발 정책의 실현으로 읽히기도 한다. 이에 대한 필자의 해석을 듣고 싶다.

학술회의 참관기

양 강 (YANG KANG) (석사 4, 한국중세사 I)

8월 5일 목요일에 계명대학교 목요철학원이 주관하여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에 의한 인문도시지원사업으로 ‘야은 길재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하는 2021년 제1차 구미학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 학술 심포지엄을 계기로 도현철 선생님, 최민규, 이상민 두 박사 선배님과 같이 8월 4일(수)에서 5일(목)까지 경상북도 구미시로 답사를 다녀왔다. 구미는 원래 조선시대 큰 고을인 선산군에 속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 때문에 시로 승격되었고, 선산은 읍으로 내려갔던 지역이다. 선산은 ‘조선 인재의 절반은 영남에 있고, 영남 인재의 절반은 선산에 있다’라는 말이 전해지듯이 인물이 많은 고장으로 알려져 있다. 야은 길재 역시 선산 출신으로 절의를 실천하고 학도를 길러내고 유교 교화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이 학술대회는 선산 곧 구미에서, 그 지역이 고향인 야은 길재를 대상으로 열린 것이다. 학술대회에 참가하면서 선산 구미 지역을 대상으로 1박2일 역사 유적 답사를 했던 것이 이번 일정이었다.

나는 연구시대가 길재가 살았던 여말선초이긴 하지만 길재에 대한 깊이 알지 못하였다. 또한 신촌 이외의 다른 지역에 대해 잘 모르는 외국 유학생으로서 구미시는 또한 매우 낯선 도시다. 따라서 출발하기 전부터 구미라는 도시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이번 기회를 통해 길재라는 인물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8월 4일 수요일 오전 6시에 연세대 외솔관 앞에서 최민규 선배님과 함께 선생님의 차를 타고 출발하였다. 9시쯤에 기차를 타고 이미 도착한 이상민 선배님과 김천구미역에서 만났다. 우리 네 사람이 도착한 첫 번째 목적지는 선산향교였다. 선산향교는 김종직 등 사림파의 핵심인물들이 강학 활동을 통해 결집한 장소라고 하였다. 선산향교는 산의 중턱 자리에 위치하고 읍내를 바라보고 있었다. 향교에서 선생님이 어디가 강당이고 어디가 학생들의 기숙사라고 알려줬을 때, 내 머릿속에는 당시 선생님들이 유학을 가르치고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모습이 순간적으로 떠올랐다.

그 후 우리는 선산객사를 찾았다.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선산객사가 궁실조(宮室條)에 실려 있었다고 하였다. 객사는 중앙에서 지방까지 파견된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신의 숙소 및 접대장소로 작용되었기 때문에 객사는 조선시대 중앙왕권과 지방사회가 서로 연결되는 중요한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중요한 과제가 될 법한 주제라는 생각에 객사 연구들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선산객사 답사가 마친 후에 10시 30분쯤에 윤실네진부령 황태를 찾아서 점심을 먹었다. 코로나 19의 상황을 고려해서 봄비는 것을 피하려고 아침을 못 먹기 때문에 정상적인 점심시간보다 앞당겨진 것이었다. 황태와 함께 나온 얼큰한 콩나물국국은 있는데 이렇게 먹고 나면 황태를 덜 느끼하

게 먹을 수 있다. 황태는 겉에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져 있어 보기만 해도 식욕이 넘친다. 먹어 보니 육질이 무척 부드럽고 쫄깃쫄깃하였다. 황태 곁에 양념을 발라 매워 보이지만 먹어 보면 맵지 않고 오히려 달짝지근한 것이, 황태의 맛과 어우러져 기가 막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지로 우리는 금오서원(金烏書院)을 찾았다. 금오서원은 야은 길재의 학문과 충절을 기리는 곳이라고 하였다. 금오서원의 구조는 선산향교의 구조와 비슷한데 주로 전학후묘(前學後廟)의 형태다. 그러나 선산향교와 달리 금오서원의 강학공간은 정학당(正學堂)이고 선산향교의 강학공간은 명륜당(明倫堂)이다. 정학은 학문의 정통을 강조했다면, 명륜은 도덕적 수양을 강조한 것에서 차이가 있다. 이 점에서도 선산향교와 금오서원의 창립 목적을 엿볼 수 있다. 금오서원에서 가장 인상적인 곳은 금오정(金烏亭)이다. 금오정은 정학당 뒷산에 위치해 있어 계단을 길게 올라가야 한다. 높은 위치 덕분에 금오정에서는 선원의 지붕 건물뿐만 아니라 서원 옆의 드넓은 풍경도 한눈에 다 보인다. 특히 금오정에 오르면 앞에 흐르고 있는 낙동강을 조망할 수 있다. 하지만 길재 위패를 모시는 상현묘(尙賢廟)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아주 아쉬웠다.

금오서원을 떠나 다음의 목적지는 길재묘이다. 길재묘는 화려한 장식 없이 오태동 한 마을의 평범한 산 위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비문에 새겨진 ‘고려문하주서야은길선생지묘(高麗門下注書治隱吉先生之墓)’를 보면서 600년의 시간을 두고 여전히 길재 선생 불사이군의 충절정신이 느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길재묘 앞에 서면 마을의 전경이 내려다보였는데 이 또한 길재의 정신이 마을을 지키는 듯하였다.

우리는 다음 목적지로 철곡 선봉사 대각국사의천비를 보러 갔다. 오랜 비포장도로를 산길로 한참을 달려 도착하였다. 그러나 대각국사비 근처의 목줄이 없이 방치된 개 5 마리 때문에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차에서 사진을 찍고 돌아와야 하였다. 이는 이번 구미 유적 답사의 큰 아쉬움 중 하나지만 안전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이것도 이번 구미 답사 중에 흥미로운 일화가 되었다. 저녁에는 이상민 선배가 조사해온 대혜골 식당으로 삼계탕을 먹으러 갔다. 삼계탕은 한국의 전통 음식으로 중국에서도 유명하고 나도 중국에서 먹어본 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에 구미에서 맛본 삼계탕은 중국보다 분량이 크고 육질이 부드러워 국물이 담백하였다. 지역에서 소문이 난 맛집이라던데, 그럴 만 하다고 생각하였다.

둘째 날 8월 5일은 학술회의 위주로 일정을 잡았다. 오전에는 선생님 및 선배님들과 함께 금오산 케이블카를 타고, 도선굴을 답사하였다. 도선은 나말여초의 선승으로 풍수지리의 대가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점심에는 이름난 오산골 한우 가마솥국밥을 먹으러 갔는데 내 이어폰을 잊어버려서 호텔에 되돌아갔다. 이 때문에 교수님과 선배들이 맛있는 국밥을 제때 드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컸다.

오후에는 학술대회가 열리는 장소인 구미성리학역사관을 찾아 선생님의 학술발표를 들었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 학술회의에서는 지도교수님이신 도현철 선생님의 ‘야은 길재의 생애와 사상’을 중심으로 한 기조발표에 이어 서울대 양일모 교수님(야은 길재의 충절론), 한양대 김

용헌 교수님(야은 길재의 인생관과 출처관), 경북대 이구의 교수님(야은 길재의 문학사상), 경북대 정재훈 교수님(야은 길재와 조선 주자학의 도통)의 주제발표가 진행되었다.

도현철 선생님의 발표는 야은 길재의 삶과 사상을 둘러싸고 그가 조선시대에 추앙받는 양상을 살펴해보면서 그의 행적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 우선 지금까지 학계에서 길재에 대한 연구를 조선시대 길재의 선비형, 길재의 교학 활동과 인재 양성, 길재의 삶은 유교 교화에 대한 기여, 길재의 학문적 계승과 조선시대 도통의 계보, 조선시대 시기별 길재 인식의 추이, 이 다섯 가지 분류로 정리하였다. 길재의 사상과 활동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도현철 선생님은 길재가 『주자가례』와 『소학』에 충실하여 몸소 실천하고 학도를 가르치며 본성 함양과 유교의 명분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길재가 유교적인 삼강오륜 이념을 모범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조선시대 유교 사회 윤리도덕 사회를 확립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하였다.

양일모 교수님의 발표는 은자의 미덕이라는 시각에서 길재가 충을 실천하는 유교적인 윤리의 실천자임을 보여주는 내용이었다. 우선 발표에서 유학적 은자의 조건으로 도의 유무, 인의 실현, 시중(時中)의 원리에 따라 행동을 제기하였다. 여말선초의 은자들은 조선의 왕권 강화와 사림파의 성장이라는 계기와 맞물려 충성과 절개를 상징하는 인물로 부각되었고, 성리학의 출발점으로서 또는 사림파의 도통을 밑받침하는 기원으로서 의미가 부여되었다. 길재는 이러한 유자들 중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길재는 조선왕조에서 출사하지 않은 절개를 지닌 숭고한 선비였을 뿐만 아니라 유교적 은자의 철학을 몸소 실천하여 궁극적으로 인을 실현하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김용헌 교수님의 발표는 길재의 유교 지식인의 삶, 절의 정신과 교육 활동을 살펴봄으로써 길재의 절의와 도통 두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조명한 내용이었다. 발표의 내용에서는 길재를 수기치인의 삶을 지향한 유교 지식인, 절대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선비정신의 수유자와 거경궁리(居敬窮理)의 주자학 공부 방법론의 실천가, 성리학적 『소학』의 공부와 실천을 중시하는 교육가로 평가하였다. 또한 길재의 인생관과 출처관에 대해서 도를 지키기를 유교적 출처관, 곤궁하게 살면서도 도를 즐기는 안빈낙도의 삶, 도학적 엄숙주의에 갇히지 않고 학생들과 한가롭게 거닐면서 담소를 나누는 교육관을 지향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구의 교수님의 발표는 길재의 시에 나타난 정신세계, 곧 지향의식(志向意識)을 고찰한 내용이었다. 현재 남아 있는 길재의 시를 보면 길재가 시를 지어주었거나 시를 받은 사람은 대부분 조선의 조정에서 벼슬을 하지 않은 자들이었다. 이는 그가 어렸을 때 충효를 몸소 실천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길재의 시는 들뜨거나 시끄럽지 않다. 이는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는 그의 성격과 욕심 없이 살아가려는 그의 지향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길재가 묘사한 시골, 산기슭, 초가집, 대나무 숲, 독서하는 모습은 한가하면서도 평화롭고, 조용하면서도 정겨운 그의 지향의식을 반영하였다. 또한 길재의 시에는 차분하면서 조용한 선비정신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그가 10대 나이에 지은 시나, 치사(致仕)하고 난 뒤에 지은 시는 조용하면서 차분하다. 종합하자면 길재의 시를 통해서 그의 궁극적인 지향은 선비의 자세를 굳게 지키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정재훈 교수님의 발표는 길재가 주자학의 올바른 실천, 특히 절의를 지킨 측면에서 사림파들에 의해서 도통의 계보 속에 자리매김되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었다. 발표의 내용에 따르면 조선전기에는 도통과 관련하여 문묘종사의 대상이 되었던 인물은 이제현-이색-권근이었다. 이때 길재는 주목되는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색과 권근이 성리학의 학문과 실천 두 영역에서 가졌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가 실현되지 않았다. 길재를 중심으로 한 도통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던 것은 조광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사림파 인물들은 절의를 지키는 선비라는 이유로 정몽주에서 길재로 내려오는 학문적 연원에 주목하였다. 이는 사림파들이 이들의 위망을 빌려 사회에서 억울하게 입은 누명을 벗어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몽주와 길재의 학문적 정통성도 담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길재에 대한 평가는 선조 이후에 더욱 본격화하게 되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발표자 교수님들은 역사, 철학, 문학 분야에서 서로 다른 시각으로 길재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후대의 인식과 평가를 검토하셨다. 여러 교수님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길재의 생애와 사상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역사 연구자들과 다른 분야 연구자들이 길재라는 인물에 대한 연구 방법과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그 만큼 이번 발표회 참관은 역사 인물에 관한 논문을 쓸 때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만 참고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문학, 철학 분야의 연구 성과도 참고해야 함을 생각하게 해 준 시간이기도 하였다.

발표회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 하나를 꼽자면 종합토론 시간에 구미시민들이 교수님들에게 질문한 것이었다. 전문 학자와 일반 시민 간의 대화와 교류는 개인적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이번 발표회의 논문을 이해하기 어려웠으나, 발표자들에게 길재에 대한 자신의 인식에 대해 말하고 구미시의 문화 조성에 대한 의견을 물어왔다. 역사 인물에 대한 한국의 일반 시민들의 인식 수준, 한국 지역 주민들의 지역 역사 문화 조성에 대한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학술대회가 마치고 백숙을 먹었다. 안내하는 연구원 여성 선생님이, 자신의 테이블에서 얼마 먹지 않았다고 남았다고 백숙을 남겨주셔서 실컷 먹을 수 있었다. 배려해주신 마음에 감동을 받았고 기분이 좋았다. 구미에서 그 전날은 삼계탕, 오늘은 백숙, 돌이켜보니 닭요리를 많이 먹은 일정이 되어버렸다.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것은 이미 밤 10시 반이었다. 날이 어두워진 무렵 구미에서 출발해서 고속도로를 달리며 답사일정을 생각해봤다. 이틀간의 역사 유적답사와 학술회의로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이틀 동안의 답사와 논문발표를 통해 길재와 구미라는 도시에 대한 인식은 더욱 깊어졌다. 우선 선생님과 선배님들의 동행과 상세한 계획까지 세워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사전에 세밀한 계획 덕분에 일정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고 구미시에서 유명한 식당들도 방문하여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또한 답사를 통해 조선건국과 조선시대 인물 유적에 대한 역사상을 떠올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기도 하였다.

현지 답사는 역사 논문이나 문헌을 읽는 것과는 다르다. 현지 답사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학문적 분위기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 특히 이번 답사를 통해서 길재 유적지와 묘, 그리고 향교와 서원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왕조의 출사를 거부하고 유학에 매진했던 길재와, 그 유지가 이어진 지방의 분위기를 이해하게 되었다. 이번 답사는 나에게 조선 초기 길재와 같은 유학자와 사림파의 활동에 관심을 더 가질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조선왕조 지식인의 활동과 사상을 더 연구하면서, 이번 답사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더욱 깊게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란다.

이 면은 여백입니다.

연세대학교 사학과 합동연구실 회보

合研 5

2021년 9월 초판 1쇄

인 쇄 북토리 BOOKTORY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230 한국학술정보(주) 북토리사업부

080-855-8285

편집·디자인 博多

제작·발행 사학과 합동연구실

|

함께, 갈다

|